

제조제로 인한 약해를 방지하는 방법

- ▷…………이 글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계간지인 “WEEDS……▷
- ▷……TODAY”의 1980년 가을호에 실린 글을 우리말로……▷
- ▷……옮겨본 것입니다. 원문은 “WEEDS TODAY”의……▷
- ▷……편집인이며 美國 일리노이대학 교수인 Ellery L.……▷
- ▷……Ksnake박사가 쓴 것입니다. 부탁드릴것은 원저자의……▷
- ▷……뜻하는 바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걱정스럽지만 매년……▷
- ▷……제조제로 인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 ▷……현실이기에 때문에 지도적인 위치에 계신분이나 실제……▷
- ▷……로 제조제를 사용하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
- ▷……도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註>

누구네집 개인가……

어느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문간에서 마중하는 사이에 큼직한 개가 한마리 그 손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개가 가구위에 뛰어 올라가는가 하면 아이들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밖을 내다보고 짓기도 하여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 개는 음식이라도 달라는듯 식탁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할 때에 집주인이 “저희집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에는 개는 데리고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기가 막힌 어조로 “아니—전 맥의 개인줄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조제로 인한 약해는 바로 이 길 잃은 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귀찮고 달갑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농장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약제를 살포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또는 제조회사의 잘못일까요?

내가 겪었던 제조제의 약해문제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날 저녁때 우리 군의 농촌지도원이 긴급 전화를 해왔습니다.

내가 그곳에 불러 나갔을때 거기엔 피해를 입은 농민이 자주 밖을 내다 보면서 농약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농민은 분명 약해에 대하여 당황해하고 있었지만 약해가 났다고 해서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잡초방제 효과에 만족해 하였으며, 다만 어쨌서 약해가

□ 제초제로 인한 작물의 약해를 방지하는 방법 □

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약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하여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편집자주 : 후에 농약회사 직원이 찾아와 약해의 원인과 앞으로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임) 사실 농장중 일부 몇개 지점에 약해가 났었으며 그럼에도 작물의 생육은 상당히 회복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사용방법을 약간 고치고 작업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한다면 앞으로는 다시 그와같은 피해를 입지않을것 같았습니다.

수년전, 잘 아는 농약회사 직원이 내게 “작물피해를 조사할때에 꼭 필요한 3가지는 칼과 나무토막 그리고 통나무입니다”라고 한마디 생각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과 상황을 논의 하는 동안에 통나무에 걸터 앉아 나무토막을 칼로 썰면서 어색하고 어려운 분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는 대부분 우수한 잡초방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제초제에 따라서는 작물에 약해를 내기 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 살포를 하는 경우 혹은 과다한 약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약간의 사용방법상 부주의 등으로 작물에 약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초제에 따라서는 목표로 하는 지역이외의 곳으로 날아가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주의를 하기만 하면 이와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변덕스러운 자연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입겠다고 바지를 두벌 끼워서 양복을 산 사람이 상의에 담배불 구멍을 내는 경우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 당기듯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약회사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한 최선의 제품을 공급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사용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그들은 때로 지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필요한가? 만일 어느 제품이 정말로 잡초를 잘 죽인다면 어느정도의 약해가 농민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등이지요. 그들은 때로는 이미 예견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조건에서는 약해를 낼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그 제품의 장점이 약해 위험성을 능가한다면

과연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것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몇몇 사업가도 있을수 있지만 우리의 오래된 자유기업 체제하의 농업분야에 고도의 성실성을 가진 농약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오늘날 잡초방제 현실.....

만일 여러분이 선택한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배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약해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옛날같이 약해는 없으나 많은 잡초로 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어도 우리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농약회사를 동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실수가 없을수는 없지만 그들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제품의 내용물에는 곁에 붙은 포장지에 쓰여진 대로 일정량의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구입한 여러분은 적당한 양을 사용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둘수도 있지만 때

로는 중복 살포등으로 완전한 잘못을 저지룰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해는 들판의 끝쪽이나 몇개의 제한된 지점에 나타납니다. 특히 들판 끝에 약해가 난 경우에는 농장주인이나 지나 다니는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우므로 때로는 피해를 과장시켜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피해과장-사태악화.....

농민들이 전화상으로 약해정도를 이야기 하고 작물의 생육이 어떨 것인가를 물어오면 나는 흔히 완전히 회복될 것인가 또는 실패할 것인가의 확률을 반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물이 죽든가 혹은 살아남든간에 나의 대답은 틀리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콩, 옥수수, 그리고 그밖의 많은 작물들이 생육초기의 어느 정도의 약해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정도의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약해문제를 조사하는 양식중에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기술하라는 항목을 본일이 있습니다. 그 문항(問項)은 바로 약해의 정도를 기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농민의 기분이나 심정을 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과 6월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색으로 변한 콩잎과 자

□ 제초제로 인한 작물의 약해를 방지하는 방법 □

색으로 변한 옥수수일 등에 관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초순이 되자 작물생육이 훨씬 좋아져서 불평하는 정도가 대단히 누그러졌으며 7월 하순이 되면서부터는 약해문제 보다는 기상조건에 대한 걱정거리가 문제로 등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대부분의 경작자들은 자기들이 지난해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작물이 제초제 피해를 입었다면 새로운 경험을 얻는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십시오.

조금만 조심했다라면.....

제초제의 문제점을 극소화(極少化)하고 만족스러운 제초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균일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복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포장의 끝에 와서는 살포작업을 반드시 중지하십시오. 어느 한 구석에 잡초가 유난히 더 발생된다고 해서 그곳에 남은 양의 제초제를 더 뿌려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무기의 노즐이 크기가 같은 것인가 그리고 살포되는 양이 균일한가 등을 작업시직전에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제초제를 사용하여 최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약제가 가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작물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각각의 토성이나 문제잡초에 가장 알맞는 사용양량은 얼마인가?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어떤가? 제초제의 주성분이 토양중에 잔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용방법상 정확성과 균일성을 기할수 있을 것인가? 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약제의 성질을 잘 알때까지 절대 서두르지 말고 경험을 쌓도록 하십시오.

가능한한 농가 모임이나 교육, 훈련등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때로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터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면한 잡초방제 기술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용방법을 올바르게 지켜 제초제를 사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될 것이며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